

광주FC '전주성' 서 2승 사냥 나선다

12일 전북현대와 K리그1 3R 이순민·정호연 중원 듀오 기대 강한 압박·공격 축구로 맞설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우승 후보 전북현대를 상대로 '승격팀 반란'을 일으키며 시즌 2승에 성공할까.

지난 라운드 FC서울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력을 펼치고도 아쉬운 패배를 당한 광주 선수단은 압박과 역동적인 공격 축구로 전주성에서 승리 찬가를 부르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지난 라운드는 아쉬움이 많았다. 광주는 지난 5일 7357명의 광주축구 전용구장 역대 최다 관중 앞에서 이정호 감독의 주도권 축구를 제대로 선보였으나 에이스 엄지성의 경고 누적 퇴장 악재와 아쉬운 결정력으로 FC서울에 0-2로 졌다.

비록 패배했지만 리그 강호 FC서울을 상대로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탄탄한 수비 바탕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광주 팬들에게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정호 감독도 경기력에 대해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감독은 지난 5일 경기 직후 열린 공식 인터뷰에서 "솔직히 아쉬운

것보다 분하다. 저렇게 축구하는 팀에게 졌다는게 분하다"면서도 "선수들은 계속 이 경기력을 유지하면 된다. 이보다 더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나보다 우리 선수들이 더 분할 것이고, 개선점을 찾아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며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광주 같은 색깔을 가진 팀이 결과도 가져와야 하고, 오늘 했던 축구를 상대가 누구여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수단 역시 이 감독과 한마음이다. 지난 경기 패배의 아쉬움은 묻어두고 전주성에서 광주만의 색깔과 경쟁력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이순민과 정호연 중원 듀오가 선봉에 나선다. 이순민은 안정적 볼처리와 유지 능

력으로 수비 라인 보호는 물론 왕성한 활동량으로 살림꾼 역할까지 도맡았다. 정호연은 적극적 압박과 투지로 선보인 맹활약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두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두현석과 함께 평점 7.2점으로 양 팀을 통틀어 상위 3인(오스마르 7.8·박동진 7.4)에 들었다.

팀 전술에 녹아들고 있는 산드로, 토마스, 아사니 등 외국인 공격수 3인방의 발끝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출전 정지인 엄지성의 빈 자리에는 하승운과 김한길, 정지훈 등 자원들이 매서운 공격의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상대인 전북은 매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팀이다. 김문환과 김진수, 백승호, 송민규, 조규성 등 카타르 월드컵

스타를 비롯해 아마노 준, 구스타보, 안드레 루이스 등 검증된 외국인 선수까지 최강 전력을 갖췄다. 통산 전적 역시 광주가 1승 5무 13패로 열세다.

하지만 전북은 최근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시즌 초반 2경기에서 선제득점하고도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올리지 못했다. 1라운드 울산현대전에서 1-2로 패했고, 2라운드 수원전에서도 1-1로 비겼다. 여기에 신입생 이동준과 주장 홍정호가 부상으로 이탈했다.

광주가 전북 원정에서 수원전과 서울전처럼 강한 압박과 역동적인 공격 축구를 살려 압도적 전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주말 시범경기 입장권 판매

평일 홈 경기는 무료



KIA 타이거즈가 2023 KBO 시범경기 주말 홈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

KIA는 오는 18~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전과 25~26일 NC전 입장권을 경기 5일전 오전 11시부터 예매한다고 9일 밝혔다.

입장권 예매는 구단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현장 판매는 매표소와 무인발권기에서 이뤄

지며 경기 개시 1시간 30분 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5000원, 중고생 3000원이며 타이거즈가족석을 제외한 3층 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챔피언석과 중앙테이블석은 성인·청소년 구분 없이 5000원이다. 초·중·고생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이며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수령해야 한다.

한편 시범경기 평일 홈경기의 경우 챔피언석과 중앙테이블석, 3루 일반석이 무료 개방되며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한규빈 기자



한국 야구대표팀의 강백호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 B조 호주와의 경기에서 7회말 2루타로 출루한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강백호는 이후 발이 떨어진 것이 확인돼 아웃됐다. 뉴시스

AI페퍼스, 14일 마지막 홈경기 수익 기부

도로공사전 입장 수익금 전액 유소년 배구발전 지원금 책정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이 도드람 2022-2023 V-리그 마지막 홈경기 티켓 수익 전액을 지

역사회 유소년 배구발전을 위해 내놓는다.

AI페퍼스는 오는 14일 한국도로공사와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기념해 관중 입장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유소년 배구 지원금으로 기부한다고 9일 밝혔다.

AI페퍼스는 또 이날 화이트데이를 맞아 입장 관중 선착순 1000명에게 사랑과

사인볼을 증정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선수단 단체 인사와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경기예 앞서 오후 6시부터는 여성 성악 앙상블팀 '리블링스'의 사전 공연이 30분간 펼쳐진다. AI 페퍼스는 이번 시즌 지역 사회의 밴드와 댄스팀 등을 초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연을 선사한 바 있다.

김동연 AI페퍼스 단장은 "이번 시즌 광주 배구 팬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도 드린다"며 "지역 사회와 상생이 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다음 시즌에는 더욱 성장한 AI 페퍼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팀 창단 공모 전남 4개 선정

레슬링·수구·육상·복싱 팀 3년간 11억여 원 지원금 확보

전남의 4개 실업팀이 대한체육회 팀 창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 동안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체육회 레슬링팀·수구팀, 진도군청 육상팀, 목포시청 복싱팀이 대한체육회 팀 창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억865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체육회 레슬링팀은 2억7000만원, 수구팀 3억9000만원, 진도군청 육상팀 2억7000만원, 목포시청 복싱팀 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3년에 걸쳐 받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해당 팀 선수들은 안정적인 선수생활과 훈련 여건을 갖추게 돼 경기력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남 체육은 도내 연계육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략종목인 레슬링과 수구 종목의 우수선수를 적극 활용해 레슬링팀 지도자 1명·선수 4명과 수구 팀 지도자 1명·선수 12명 등 총 18명을 구성,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전남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연계육성, 나아가 전남체육 진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호주에 7-8 패... 한국 야구 또 수모

WBC 본선 1라운드 첫 경기 마운드 부진·황당한 주루사 2라운드 진출 빨간불 켜져



한국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1라운드

첫 경기에서 북병 호주에 달미를 잡으며 2라운드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호주와 WBC 본선 1라운드 B조 첫 경기에서 7-8로 재역전패했다.

2006년 제1회 대회에서 4강, 2009년 준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은 2013년 3회, 2017년 4회 대회에서 연거푸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두 대회 모두 1라운드 1차전 패배가 발목을 잡았다. 2013 WBC에선 네덜란드를 1차전에서 만나 0-5로 졌다. 다소 쉽게 여겼던 상대에 패해 큰 상처를 입은 한국은 조별리그를 2승1패로 마치고도 짐을 싣다.

2017 WBC 1차전에서는 야구 변방으로 여겼던 이스라엘에 1-2로 졌다. 한국은 또 다시 1승2패로 1라운드 탈락 고배를 마셨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첫 경기인 호주에게 홈런 3방을 허용하며 패해 8강 진출에 비상이 걸렸다.

첫 경기를 내준 한국은 조 2위까지 주어지는 2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는 10일 일본전, 12일 체코전, 13일 중국전을 모두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치르게 됐다.

마운드 부진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 선발로 나선 고영표가 4.1이닝 4피안타(1피홈런) 3사사구 2실점을 내주며 부진했다.

중간계투진도 호주 타자들의 장타에 당했다. 원태인(1.1이닝 무실점)과 정철원(0.1이닝 무실점), 이용찬(1.2이닝 무실점)은 제 몫을 했지만 소형준(0.1이닝 1피안타 1사구 2실점), 김원중(1이닝 1피안타(1피홈런) 1실점)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믿었던 양현종의 부진이 뼈아팠다. 양현종은 4-5로 뒤진 8회초 1사 후 등판해 스리런 홈런 포함 3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다. 양현종의 추가 실점이 한국의 뼈아픈 패배로 이어졌다.

미숙한 주루플레이도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 4-5로 뒤진 7회말 1사 후 대타로 나선 강백호는 좌측 담장을 직격하는 2루타를 친 뒤 세레머니를 펼치다 태그아웃을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후속 양의지의 우중간 안타 때 동점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쉬움이 큰 주루사였다.

타선은 이날 4회까지 삼자범퇴로 무기력했지만 5회부터 폭발해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였다.

양의지는 스리런 홈런을 포함해 3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 박병호는 3타수 1안타 2타점, 이정후는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으로 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한국은 이날 4회초 로건 웨이드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먼저 내줬다. 5회초엔 팀 케널리에게 솔로홈런을 맞아 추가실점했다.

한국은 5회말 양의지의 역전 스리런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었고 6회말 박병호의 1타점 적시 2루타로 추가 득점했다.

하지만 7회말 로비 글렌디닝에게 3점포를 맞아 4-5로 재역전을 허용했고, 8회말에도 로비 퍼킨스에게 스리런포를 맞았다.

한국은 4-8로 뒤진 8회말 사사구 6개와 내야방블 등으로 3점을 뽑아 7-8로 호주를 턱밑까지 쫓았지만 승부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